

지속가능한 경제 복지 지표 : 복지 GDP

-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의한 국내총생산(GDP)개념이 국민 전체의 복지 또는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음.

-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(ISEW;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)체계를 이용하여 화폐단위로 환가한 삶의 질의 수준, 즉 복지GDP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.

- 우리나라의 복지GDP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ISEW체계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추계하였음.

1. 한국의 복지GDP 추계결과

- 2007년의 한국의 1인당 GDP는 20,015달러인 반면에 1인당 복지 GDP는 11,569달러로 추계됨
 - 2007년도 1인당 복지GDP는 1인당 GDP의 57.8%에 해당됨.
 - 1996년의 1인당 GDP는 12,249달러이며 1인당 복지GDP는 8,101달러로 1인당 GDP의 66%를 차지하고 있음.
 -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4.5%인 반면 연평균 1인당 복지GDP 성장률은 3.2%로 나타남(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전체 GDP 성장률은 7.3%이고 연평균 전체 복지GDP 성장률은 5.2%로 추계됨).

[표 1] 1인당 GDP와 1인당 복지GDP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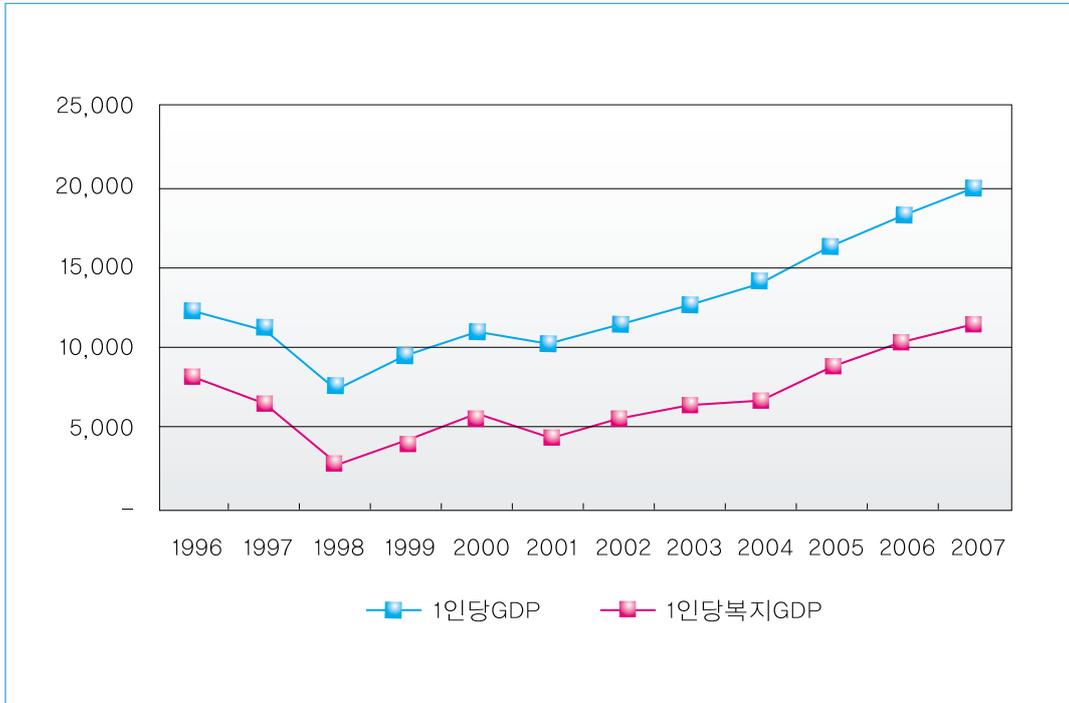
(단위: 달러)

| 연 도 | 1인당 GDP | 1인당 복지 GDP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996 | 12,249 | 8,101 (66.1) |
| 1997 | 11,235 | 6,650 (59.1) |
| 1998 | 7,463 | 2,746 (36.8) |
| 1999 | 9,554 | 4,158 (43.5) |
| 2000 | 10,884 | 5,637 (51.7) |
| 2001 | 10,176 | 4,331 (42.5) |
| 2002 | 11,487 | 5,585 (48.6) |
| 2003 | 12,710 | 6,491 (51.0) |
| 2004 | 14,153 | 6,819 (48.1) |
| 2005 | 16,309 | 8,727 (53.5) |
| 2006 | 18,387 | 10,468 (56.9) |
| 2007 | 20,015 | 11,569 (57.8) |

주: ()안은 1인당 GDP대비 비율임.

[그림 1] 1인당 GDP와 1인당 복지GDP 추세

(단위: 달러)



[표 2] GDP와 복지GDP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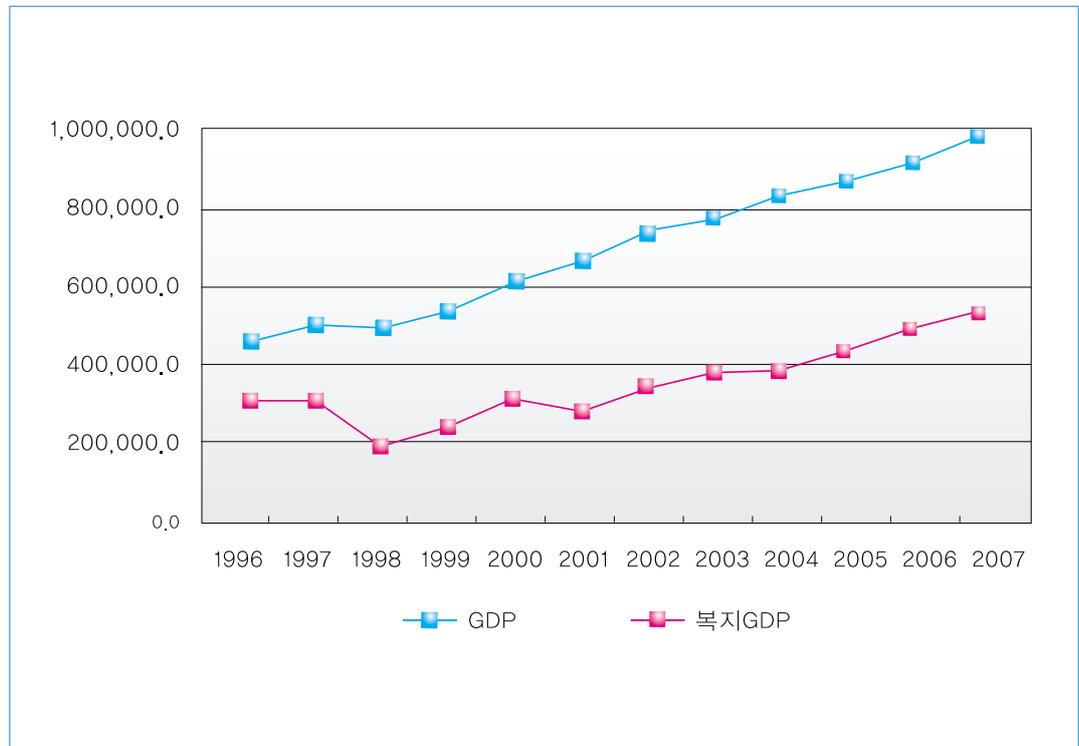
(단위: 10억원)

| 연도 | GDP | 복지GDP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996 | 448,596.4 | 296,785.1 (66.1) |
| 1997 | 449,134.8 | 290,664.1 (59.1) |
| 1998 | 484,102.8 | 177,832.9 (36.7) |
| 1999 | 529,499.7 | 230,584.4 (43.5) |
| 2000 | 603,236.0 | 299,604.1 (49.6) |
| 2001 | 651,415.3 | 264,767.7 (40.6) |
| 2002 | 720,539.0 | 332,807.7 (46.1) |
| 2003 | 761,113.7 | 370,272.3 (48.2) |
| 2004 | 826,892.7 | 374,948.8 (45.3) |
| 2005 | 865,240.9 | 430,309.8 (49.7) |
| 2006 | 908,743.8 | 483,077.5 (53.1) |
| 2007 | 975,013.0 | 520,895.0 (53.4) |

주: ()안은 1인당 GDP대비 비율임.

[그림 2] GDP와 복지GDP 추세

(단위: 10억원)



2. ISEW계정체계

- ISEW계정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정항목은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임
 - 민간소비를 기준으로 하여, 먼저 국민복지에 기여하나 국민계정에서 추계되지 않는 서비스의 흐름과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정부지출을 가산.
 - 다음에 민간소비지출의 측정과정에서 과대평가 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항목을 화폐환가하여 공제.
 - 또한 현재의 인간활동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훼손시키는가를 환가하여 공제.
 - 끝으로 국민복지의 원천이 되는 자본축적의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·내외 자원의 이동의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들을 가산.

□ 한국의 ISEW추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계하여 가산 · 감산하였음

- 가산항목은 ① 소득분배를 감안한 가중개인소비지출 ② 가사노동의 가치 ③ 내구소비재 서비스 ④ 보건 ·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⑤ 순자본성장(Net Capital Growth) ⑥ 국제자본수지.
- 감산항목은 ① 내구소비재 구입비 ② 보건 · 교육을 위한 민간의 방어적(defensive) 지출 ③ 교통사고 비용 ④ 출퇴근 비용 ⑤ 수질공해비 ⑥ 대기오염비 ⑦ 소음공해비 ⑧ 습지대의 감소 ⑨ 농경지 감소 ⑩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⑪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환경위험 ⑫ 오존층 파괴로 인한 비용.

□ ISEW체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의 변화는 복지GDP의 디플레이터(deflator) 역할을 하게 됨. 즉, 지니계수(Gini coefficient)가 악화되는 것은 민간소비지출의 규모가 지니계수 변화율만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

- 2007년 전체 GDP대비 복지GDP의 비율은 53.4%이나 소득분배가 199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그 비율은 57.4%로 상승.
- 2007년에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39조 3,797억원의 복지GDP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 금액은 GDP의 4%.
- 손실액규모를 복지GDP의 타 항목과 비교해 보면 2007년에 소득재분배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복지GDP의 손실(39조 3,797억원)은 동년도의 환경파괴(38조 4,312억원),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(28조 9,133억원) 등 보다 큰 규모임.
-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 전체의 민간소비지출액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 심화가 미치는 사회적 손실 또한 큼.

[표 3] Gini계수 악화로 인한 복지GDP 손실금액

(단위: 십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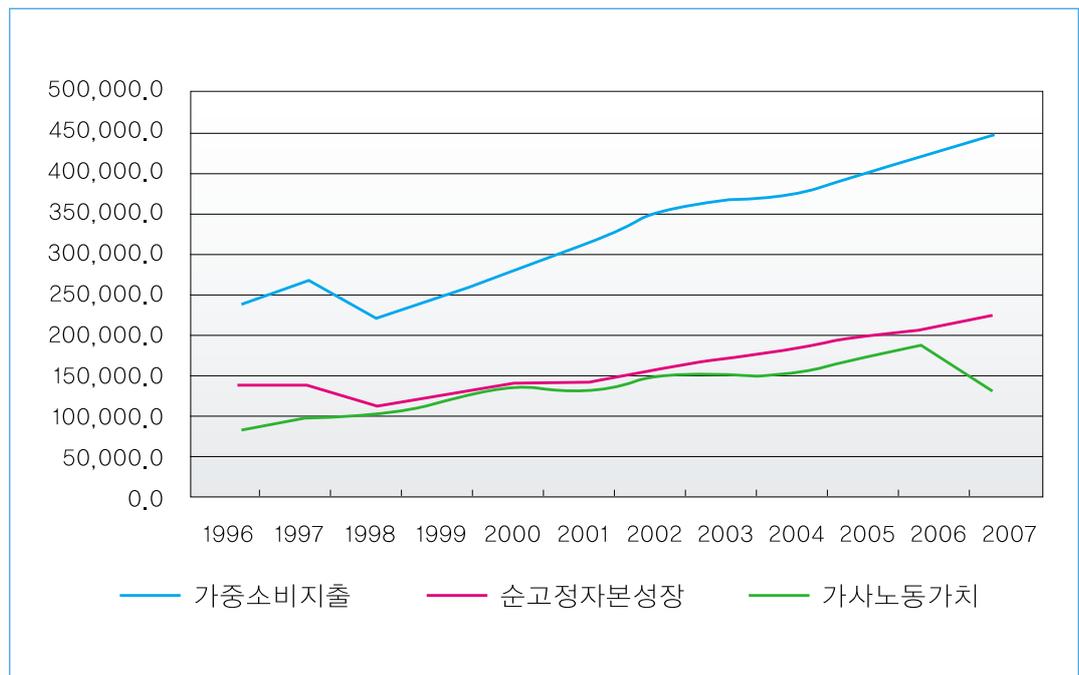
| 연 도 | GINI 계수 | 복지 GDP(A) | 1996년의 소득분배 유지시 의 복지 GDP(B) | 차액(B)-A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996 | 0.291 | 296,785.1 | 296,785.1 (66.2) | - |
| 1997 | 0.283 | 290,664.1 | 282,673.3 (57.6) | -7,990.8 (1.6) |
| 1998 | 0.316 | 177,832.9 | 193,110.7 (39.9) | 15,277.7 (3.2) |
| 1999 | 0.320 | 230,584.4 | 253,563.6 (47.9) | 22,979.2 (4.3) |
| 2000 | 0.317 | 299,604.1 | 326,372.9 (54.1) | 26,768.8 (4.4) |
| 2001 | 0.319 | 264,767.7 | 290,243.7 (44.6) | 25,475.9 (3.9) |
| 2002 | 0.312 | 332,807.7 | 356,824.7 (49.5) | 24,017.0 (3.3) |
| 2003 | 0.306 | 370,272.3 | 389,358.5 (50.8) | 19,086.2 (2.5) |
| 2004 | 0.310 | 374,948.8 | 399,430.0 (48.3) | 24,481.2 (3.0) |
| 2005 | 0.310 | 430,309.8 | 458,405.6 (53.0) | 28,095.8 (3.2) |
| 2006 | 0.310 | 483,077.5 | 514,618.6 (56.6) | 31,541.1 (3.5) |
| 2007 | 0.313 | 520,895.0 | 560,274.7 (57.5) | 39,379.7 (4.0) |

주: ()안은 1인당 GDP대비 비율임.

- 복지GDP의 구성항목 중 가산항목(+)으로는 가중소비지출, 가사노동의 가치, 순자본성장 그리고 공공의 보건·교육지출이 있음. 가중소비지출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항목이 순자본성장과 가사노동의 가치임
 -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가중소비지출은 1.9배, 가사노동의 가치는 2.5배, 순고정자본 성장은 1.6배가 증가.
 - 복지GDP의 가산항목이면서 가장 규모가 적은 항목이 공공의 복지 증진적 보건교육지출임. 공공의 보건교육지출은 1996년에 GDP 대비 1.9%에서 2007년에는 2.3%로 성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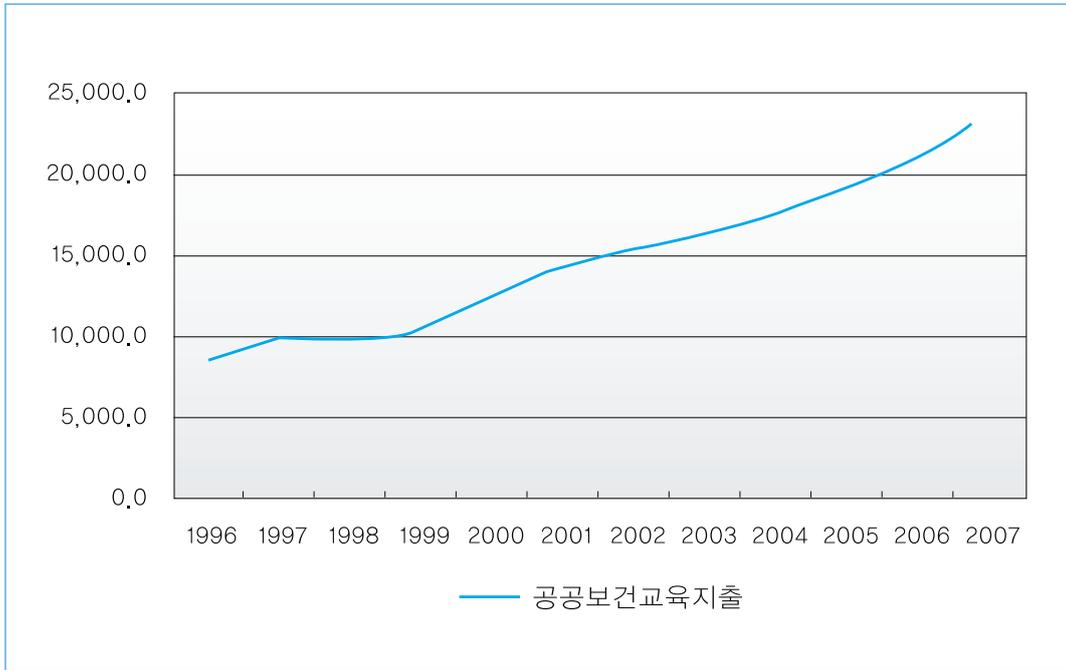
[그림 3] 가중소비지출, 순자본성장, 가사노동의 가치 추세

(단위: 10억원)



[그림 4] 공공의 보건·교육지출 추세

(단위: 십억원)



[표 4] 복지 증진적 항목

(단위: 십억원, %)

| 연도 | 가중소비지출 | 순고정자본성장 | 가사노동가치 | 공공보건교육지출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996 | 236,194.1 (52.7) | 134,340.6 (29.9) | 79,759.4 (17.8) | 8,535.8 (1.9) |
| 1997 | 265,745.8 (54.1) | 136,676.9 (27.8) | 96,656.0 (19.7) | 9,713.9 (2.0) |
| 1998 | 218,294.3 (45.1) | 109,598.5 (22.6) | 100,913.5 (20.8) | 9,880.6 (2.0) |
| 1999 | 247,535.2 (46.7) | 118,990.4 (22.5) | 113,056.7 (21.4) | 10,293.1 (1.9) |
| 2000 | 284,397.4 (47.1) | 136,578.2 (22.6) | 133,761.7 (22.2) | 12,552.2 (2.1) |
| 2001 | 310,373.1 (47.6) | 139,390.0 (21.4) | 128,533.2 (19.7) | 14,320.9 (2.2) |
| 2002 | 353,563.6 (49.1) | 156,431.3 (21.7) | 143,791.1 (20.0) | 15,208.3 (2.1) |
| 2003 | 369,116.5 (48.1) | 168,441.9 (22.0) | 148,094.4 (19.3) | 16,262.8 (2.1) |
| 2004 | 375,256.1 (45.4) | 175,883.8 (21.3) | 148,511.3 (18.0) | 17,417.2 (2.1) |
| 2005 | 398,831.1 (46.1) | 196,665.1 (22.7) | 167,900.4 (19.4) | 18,846.3 (2.2) |
| 2006 | 424,236.3 (46.) | 205,773.7 (22.6) | 184,196.1 (20.3) | 20,784.0 (2.3) |
| 2007 | 450,558.4 (46.2) | 221,238.1 (22.7) | 128,175.5 (13.1) | 23,106.1 (2.4) |

주: ()안은 1인당 GDP대비 비율임.

- 복지GDP 구성항목 중 복지저해적(-)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자연자원의 소모비용임. 1996년 자연자원의 소모비용은 92조 5,937억원으로 GDP대비 20.6%이었고 2007년에는 211조 2,019억원으로 비율이 21.6%에 달함
- 환경파괴항목은 복지저해적 항목 중에서 비중이 자연자원소모비용 다음이지만 증가율은 연 평균 10.8%로 자연자원소모비용 증가율(7.7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환경파괴비용의 비중을 GDP와 비교해 보면 1996년에는 GDP 대비 2.7%에서 2007년에는 3.9%로 증가.

[표 5] 복지 저해적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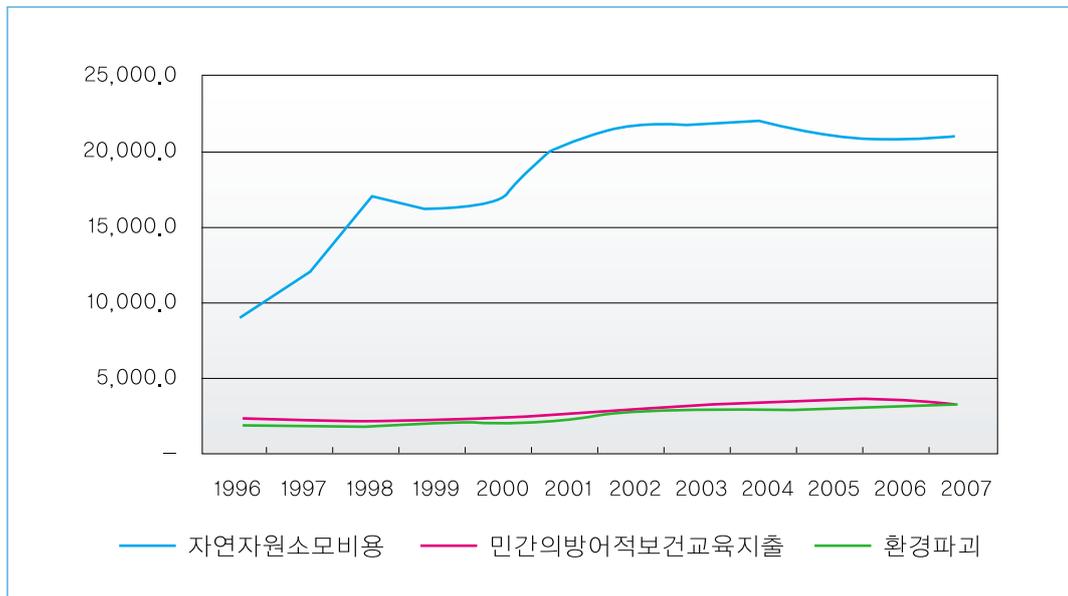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원, %)

| 연 도 | 자연자원 소모비용 | 환경파괴 |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996 | 92,593.7 (20.6) | 12,433.8 (2.8) | 16,798.5 (3.7) |
| 1997 | 123,236.7 (25.1) | 13,743.1 (2.8) | 18,231.1 (3.7) |
| 1998 | 171,493.6 (35.4) | 13,037.4 (2.7) | 16,795.5 (3.5) |
| 1999 | 164,164.9 (31.0) | 14,242.4 (2.7) | 17,826.2 (3.4) |
| 2000 | 170,933.7 (28.3) | 14,950.4 (2.5) | 18,796.5 (3.1) |
| 2001 | 206,766.2 (31.7) | 19,514.0 (3.0) | 21,624.8 (3.3) |
| 2002 | 217,078.2 (30.1) | 21,175.7 (2.9) | 24,236.5 (3.4) |
| 2003 | 219,549.0 (28.6) | 22,792.4 (3.0) | 26,438.3 (3.4) |
| 2004 | 222,399.2 (26.9) | 24,565.1 (3.0) | 28,073.3 (3.4) |
| 2005 | 212,788.1 (24.6) | 26,501.9 (3.1) | 30,102.1 (3.5) |
| 2006 | 208,698.4 (23.0) | 28,692.6 (3.2) | 32,863.4 (3.6) |
| 2007 | 211,201.9 (21.7) | 38,431.2 (3.9) | 28,913.3 (3.0) |

주: ()안은 1인당 GDP대비 비율임.

[그림 5] 자원감소, 환경파괴, 민간의 보건·교육지출 추세

(단위: 십억원)



3. GDP대비 복지GDP 비율(1인당)의 국제비교

□ <표 6>은 비교적 최근에 ISEW체계를 사용하여 복지GDP를 추계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GDP대비 복지GDP(1인당)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

○ 1인당 GDP대비 1인당 복지GDP 비율은 한국(2007년) 57.8%, 호주(1996년) 69.5%, 영국(2005년) 59.4%, 벨기에(1999년) 36.6%, 웨일즈(2000년) 23.4%로 나타남.

[표 6] GDP대비 복지GDP 비율(1인당)의 국제비교

| 국 가 | 연 도 | 1인당 GDP대비 1인당 복지GDP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 | 2007 | 57.8 |
| 호주 | 1996 | 69.5 |
| 영국 | 2005 | 59.4 |
| 벨기에 | 1999 | 36.6 |
| 웨일즈 | 2000 | 23.4 |

홍석표(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) seokp@kihasa.re.kr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1_01.jsp